

중앙유라시아 쿠르간을 통해 본 초원문화 네트워크

유 병 록 (兪炳祿)

동쪽의 싱안링(흥안령)산맥에서 서쪽의 흑해에 이르는 이른바 '중앙유라시아' 일대에는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쿠르간(Kurgan)'으로 불리는 대형 무덤이 분포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아직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석기시대 이래 중앙아시아의 초원지역민들에 의해 조성되어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르간은 그 구조상 지역이나 문화상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에 묘실을 마련하고 상부에는 이른바 흙이나 돌을 이용해 외형을 거대하게 조성하였다. 이러한 쿠르간은 당시 초원을 배경으로 살던 유목민들의 상위계층 무덤으로 추정되는바, 기원전 10세기경 본격적인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타이'의 출현 이후 더욱 본격화된다. 광활하게 넓은 초원지역을 무대로 정주보다는 유목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취락지보다는 이러한 거대한 쿠르간을 통해 그들만의 영역표시는 물론 그 위세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쿠르간은 그 외적인 형식뿐 아니라 무덤내에 부장된 유물을 통해 당시 동서문화의 교류양상을 파악하는데도 유효한데, 유럽 및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등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쿠르간에 대한 연구가 중앙유라시아 초원문화의 전개와 동서문화의 교류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고고학적 조사자료 및 최근 쿠르간에 대한 빈번해진 고고학적 조사까지 포함하여 정리 및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학부생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유적발굴조사기관에서 한국고고학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이주와 전파에 대한 관심을 가졌왔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이나 러시아지역에 대한 고고학조사를 통해 중앙유라시아지역까지 관심을 넓혀왔다. 한국 고고학 최초의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를 비롯해 <<한국청동기시대 사전>>, <<야외고고학>>, <<영남고고학사>> 등을 공저하였으며 다수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시: 2021년 11월 23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